

'20년 갈등' 종식... 불교발전 '합심'

조계종-선학원 합의문 채택 의의

종회-이사회 결의 남았으나 '낙관적'

합의문이 정식 채택되어 발표되기까지는 아직 몇 차례의 절차를 남겨두었지만, 조계종과 선학원의 20여년에 걸친 갈등관계를 끝맺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가다. 양측 대표로 참석한 영담스님과 성문스님은 "민중화만한 성과를 얻었다. 선학원과의 오랜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종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게 됐다"는 말로 합의문(합의안) 채택의 의미를 압축해 설명했다.

양측의 갈등관계는 종래에도 '정상화' 말고는 큰 특이 없었. 그러나 계속하면 서로의 에너지만 소진하는 듯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같은 속성을 양측은 잘 알고 있어 언젠가는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특히 '한뿌리'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이같은 선천적 의식이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한 보이지 않는 힘이 있었다.

조계종과 선학원은 96년 당시 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이사장 정일스님이 △조계종과 선학원은 한뿌리 △선학원 임원들의 조계종 제적인 철화, 조계종은 선학원에 시행했던

규제조치 해제 △선학원 내부규정에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 신설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양측 협의기구 설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다음 해 7월부터 시작된 양측 실무회의에서 선학원 임원 선출과 관련해 의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이에 조계종이 다시 선학원 도제에 대해 행정교육 재제를 취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조계종은 선학원과의 갈등종료를 통해 대각회 등의 조계종 관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됐다. 이는 조계종과 여타의 법인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준을 성공적으로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선학원은 도제의 행정교육 및 수계 제재, 승적 발급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한때 선학원은 재정의 부담과 여론의 따가움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교육기관과 승적 등과 관련된 행정기구 신설을 검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부담감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성문스님은 "합의가 됐으므로 만들 일이 없어졌다"고 흥분함을 드러냈다.

조계종-선학원 공동합의문

1. 대한불교조계종과 재단법인 선학원은 한뿌리임을 공감하며, 동질성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의 갈등을 완전히 종식하고 향후 고계의 발전에 최선을 다 한다.
 2. (재)선학원 정관 제3조 목적 조항에 '대한불교조계종 종지, 전통을 받들겠다'를 삽입한다. 단, 조계종은 이 조항에 대한 종헌·종법의 확대해석을 할 수 없으며, (재)선학원의 인사권, 재산권, 운영·관리권 등 법인 고유의 일체 권한을 침해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3. (재)선학원 법인 정관 제6조 선출 조항 제1항을 '임원은 조계종 승려 중 덕망이 높은 승려를 이사회에서 선출한다'로 개정한다.
 4. 조계종은 (재)선학원에 시행하고 있는 승적, 교육, 선거권, 총무직 제한 등 일체의 권리 제한을 해제하고, 선학원은 조계종에 분담금 등 의무를 이행한다.
 5. (재)선학원은 합의문 발표 후 조계종 소속 승려가 (재)선학원에 사할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총무원과 협의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6. (재)선학원은 조계종과의 합의 사항을 담은 정관을 임의로 개정할 때에는 모든 합의는 무효로 한다.
 7. 위 합의 사항은 조계종 중앙총회의 결의와 (재)선학원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 후 조계종 총무원장과 (재)선학원 이사장의 서명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8. 조계종과 (재)선학원의 합의문은 조계종 총무원장과 (재)선학원 이사장의 공동 명의로 공동한다.
- 불기 2543(1999)년 6월 22일

합의문 채택 이후 중앙총회와 이사회의 결의, 양측 대표인 총무원장과 이사장의 서명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양측 모두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조계종은 이번 합의문이 96년 합의문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어 큰 어려움은 없어 보인다. 영담스님은 "8월초 총무원장 스님의 서명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학원의 한 관계자도 "선학원이 받는 교육·행정 제재조치를 풀 방

법이 없었는데, 길이 열렸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관계자도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도제의 행정교육 입방 불허, 강령까지 마치고도 비구계를 수지하는 못하는 등 조계종의 각종 제재조치로 인해 선학원쪽 스님들이 입은 '상처'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는 향후 양측이 원만히 풀어야 할 또다른 과제로 남아 있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opia.com)

조계종-선학원 갈등 주요일지

- △1978. 2. 23 선학원 임원 직격을 조계종 승려에서 분원장으로 변경
- △85. 11. 22 제84회 중앙총회, 총무원에 선학원 문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 파악 요구
- △88. 3. 28 제108회 중앙총회, 선학원대 해촉위 구성
- △94. 11. 28 제114회 중앙총회, '선학원 대각회' 구성
- △95. 1. 24 특위-선학원 연합회의 개최
- △95. 7 선학원 도제 교육기회 제한
- △95. 9. 28 제118회 중앙총회 법안대각회 위촉 구성과 법인 임원 징계 결의
- △95. 10. 5 선학원이사회, 정관개정 불가 재천명
- △96. 8. 27 조계종-선학원 공동합의문 발표
- △96. 11. 1 조계종-선학원 실무위원회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 △97. 11. 20 선학원, 조계종 방침 수용 거부입장 천명
- △97. 12. 30 조계종, 선학원 도제 행정교육 불허 발표
- △98. 2. 17 조계종, 선학원 소속 승려의 제종명 발급 금지
- △98. 10 선학원 본원장 회의, 현안문제 관련 이사회에 위임
- △99. 1. 23 조계종 총회, 법안특위 구성 (위원장 영담)
- △99. 2. 11 선학원 실무위원회 구성 (위원장 성문)
- △99. 4. 13 조계종-선학원 1차회의
- △99. 6. 22 4차 연석회의, 공동합의문 채택



◇21일 거행된 금강유원 개원법회에는 비구니계 종진스님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6명의 유원생이 입학했다.

세계 첫 비구니 유원 비구니스님 위상강화

봉녕사 '금강유원' 개원 의미

비구니계 최초의 유원인 봉녕사 금강유원(원장 묘엄 봉녕사 주지)은 21일 오전 11시에 현판식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금강유원 유주인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지관, 조계종 교육원 교육부장 계상, 전국비구니회 회장 광우, 수석부회장 지관, 종회의원 일법·수진 스님 등 비구니 스님 3백여명이 참석했다.

유주 지관스님은 법어를 통해 "계는 성불을 이루는 재작이자, 선(線)이다"면서 "금강유원 171명들은 마음으로 섭심(攝心)해 계율을 닦고, 밖으로는 위(威)를 갖추어 보리의 종자를 심고 키우라"고 당부했다.

유장의 전문적 연구, 습의와 예참의 올바른 전승, 율학을 전승할 유사의 양성을 목표로 유원정신의 회복과 전승을 위해 지상 2층, 2백여평 규모의 봉녕사 청운담에 강당을 마련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우스님에 따르면, 금강유원은 세계 최초의 비구니 유원이란 역사적인 의미도 지니고 있다.

통도·해인·송광·영산유원에 이어 다섯번째로 조계종 유원인 전문교육기관으로 등록되는 2년제 과정의 금강유원은 지난 11년 면접 심사를 거쳐 유원생 6명을 선정했다. 1년차에 계율개론과 사미니 율의, 남·북전 유장 비교연구, 선원정규 등의 강좌를 개설하며, 2년차에는 사분비구니율장, 범망경, 비구니교단사 등의 강좌를 연다.

이번 금강유원 개원은 지난 3월 24일 제16기 행정교육에서 여행자(女行者)들에게 비구니 스님 단독으로 《사미니율의(沙彌尼律儀)》를 지도할 수 있게 된 원장선에서 이뤄진 비구니계의 숙원사업이 결실

을 맺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얼마 전 수계법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니 계율을 강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고무회(전국비구니회 교·강사 모임) 회원들을 유사의 의에서 징계할 것을 논의했다는 후문이 들렸던 점을 감안하면 크게 진척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비구니 유원의 개원은 대승불교를 지향하는 한국불교에서 소승불교의 계율인(사분율)에 근거해 비구니를 차별하던 기존의 관행을 깨고 비구니계의 위상강화에 일조할 것이라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99년 1월 현재 조계종 승려수는 비구 4천77명, 비구니 3천9백17명, 사미 2천168명, 사미니 1천811명으로 비구니스님은 비구스님과 비슷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비구니 스님들은 중앙총무원의 국장급 이하의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81명중 10명의 종회의원이 있을 뿐이다.

첫 비구니 유원의 탄생은 그간 비구니계가 개혁종단 이후 주장해 온 비구니원 또는 총무원 비구니부 신설, 비구니 총림 및 비구니부 신설, 고단 고위 행정직의 비구니스님 중용 등 비구니계의 숙원사업의 실마리를 푸는 계기가 될 것이라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현재 유원에 담겨 있는 계율의 종류는 14종에 이른다. 이 14종의 계율은 출·재가와 대·소승계로 나눌 수 있으며 출가 즉 비구(니), 식차마나, 사미(니) 등 5종(衆)이 자녀할 계는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 식차마나 6법, 사미 10계, 사미니 10계로 구분된다. 재가자인 우비새·우비아가 지켜야 할 계는 5계·8계·10계 등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교육원·포교원 축소안 논의

조계종 중헌·종법특위 쟁점사항

중헌 개정은 향후 종단 운영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특히 종단의 권력구조라고 할 수 있는 총무원장의 권한, 교구본사 주지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조계종 중헌특위 위원장 정후스님은 논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도 마치 이를 결정된 것처럼 받아들이 자칫 오해를 빚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이해당사자의 신중함을 당부했다. 다음은 22, 23일 열린 소위원회에서의 나타난 중헌 부분 쟁점 사항이다.

■교육원·포교원
△교육원 포교원의 통합 △교육원 포교원을 총무원의 부서로 편입 △현행대로 존치하되 문 제점을 보완하자는 안 등 세 갈래 주장이 나오고 있다. 22, 23일 열린 중헌특위 소위에서는 전체회의는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논란은 없었다. 이와 관련 중앙총회 교육분과위와 포교분과위, 교육원 포교원은 두 원(院)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의장단에 제출하기로 했다.

■집단지도체제
총무원장 1인에게 집중된 종단운영 권한을 7~11인의 집단지도체제로 하자는 안이다. 종단의 중진들이 월 1회 모여 종책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총무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안이라

는 설명이다. 또 종책 결정 이후에도 종도들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 있는 종책전문기구의 강화가 현실적으로 타당하며, 상임직의 육상육이 될 소지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본사주지회의
그동안의 본사주지회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했으므로 이를 대체하는 중앙총회위원회를 구성 하자는 안과 현행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본사주 지회의의 권한을 규정하자는 안이 논의됐다. 중앙총회위원회는 본사주지를 중심으로 50명 정도로 구성하며, 종단의 종책을 심의 의결 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대체기구 구성 또는 본사주지회의의 권한 범위 규정에 대해 특 위와 본사주지스님들이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결격금지
현행대로 중앙총회의원은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호계원장, 법규위원, 선거관리위원, 총무원 총무원(부, 실, 과장), 본사주지, 직할분담 사찰의 주지 및 교구총회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하자는 안과 결격금지의 전체 폐지, 총무원 부, 실장의 결격금지 해제 안이 나오고 있다. 또 부, 실장 총 총무원장, 호법부장, 기획실장만 결격을 금하자는 안 등 논의의 폭이 넓다.

이밖에도 본사주지 선출 방법, 총무원 부서의 중헌 명기 여부 또는 논란이 되고 있다. 총무원 장 임기는 4년 또는 5년으로 하되 단임으로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성운 기자

운보(雲圃) 김기창(金基昶)화백이 라면 우선 '바보 산수'가 떠오른다. 평소 자신을 '바보'라 부르던 그가 80년대 일련의 산수화 연작을 내면서 스스로 이를 '바보 산수'라 이름 붙였다. 전통산수화 기법에서의 완전한 해방감을 맛보게 해주는 파격적인 표현의 '바보 산수' 연작은 속진을 쫓아낸 평화롭고 즐거운 넘치는 낙원,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산과 습득의 미소같은 것이라 고나 할까. 해와 달을 비롯한 심상상의 해학적인 구도와 표현들이 화가의 그런 심상함은 경지를 집착해 해

준다. 그렇다면 그가 즐겨 쓰는 '바보'란 말은 어쩌면 깨달음을 이룬 성인(聖人)의 경지를 이룬 것인지 모른다.

80년은 그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준 해다. 그의 평생비난자로, 청각 장애인인 그의 귀와 입 역할에 누이 같고 어머니 같았던 동료화가 우향(雨香) 박래현(朴來賢)을 잃었다. 그 상실감을 고이 삭혀낸 다음 운필을 기울여 그리기 시작한 것이 '바보산수' 연작. 큰 슬픔과 괴로움을 이겨낸 다음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작품들이다. 적어도 그는 그림의 세

계에서 법들의 기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시대 소중한 원로화백이다.

지역화화로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운보화백의 그림들이 그의 이같은 예술혼이나 작품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실로 아름답지 못한 사건에 말려들어 있는 것을 보며 민망스러움을 느낀다.

"고급옷 로비의혹"에 이어 터져 나온 '그림 로비의혹'에 운보화백의 작품이 자그마치 2백3점이나 운위되었다. 검찰 조사결과 로비의혹은 없었던 것이라 치부해

도 뒤돌은 역시 개운치 못하다.

첫째 무턱대고 무엇이나 의혹의 눈으로 보게되는 요즘 세태가 그렇고, 그 다음 지난해 대한생명은 경영악화로 위기를 맞고 있었음에도 60억원이나 들여 싸익이 하듯 한 화가의 그림을 사들인 그 의도가 그렇다.

최순영씨 부부라 해서 그림애호가 가 되지 말란 법도 없지만, 이번 수 집에는 예술애호가보다 '이제 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투기성쪽에 무게가 더 느껴져 병성의 작가에 대한 민망스러움이 더해지는 것이다.

김정자(金貞子)·본지 논설위원



목어 바보山水

해외성지순례특선

"민족의 영산 백두산/중국 5대 불산 진산 기도대법회"

▶출발일 1차 7월 19일 - 7월 23일 (4박 5일)
2차 8월 29일 - 9월 2일 (4박 5일)
3차 9월 4일 - 9월 8일 (4박 5일)

▶특선1 동참금 820,000원 / 1인

"지장보살의 피신 김교각스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지장도량 구획선/관음도량 보타산"

▶출발일 1차 8월 16일 - 8월 21일 (5박 6일)
2차 10월 1일 - 10월 6일 (5박 6일)

▶특선2 동참금 890,000원 / 1인

"불지들을 위한 기을 금강산"

▶출발일 9월 14일 - 9월 17일 (3박 4일)

▶특선3 동참금 시중보다 할인 요금 적용

국내성지순례특선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영월 동강 여름 불교학교"

▶출발일 8월 10일 - 8월 12일 (2박 3일)

▶특선1 동참금 125,000원 / 1인
포함내용 래프팅, 어라엔 트래킹, 캠프 파이어, 동굴 탐험 등

"울릉도/독도 방생 기도 대법회 및 경주(낙산사/용림암)"

▶출발일 10월 12일 - 10월 14일 (2박 3일)

▶특선2 동참금 경주 270,000원 / 1인 낙산사, 용림암 250,000원 / 1인

해외성지순례

순례조건 항공 : 이코노미클래스 기준 / 호텔 : 2인1실 기준 / 공항세, 비자대 포함 / 한국어 안내인 동행 일정에 명기된 전지역 순례 및 공양 포함 / 1억원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 10인 이상시 출발 가능

순례지	투입금		출발일	비고
	입금	출발후		
백두산/연길/심양4일	720,000		7월 19일/8월 29일/9월4일	전일정 특급호텔 이용
백두산/연길/북경 6일	860,000		7월 19일/8월 29일/9월4일	전일정 특급호텔 이용, 卍카, 북경오리대
구화산/보타산/황산 7일	960,000		8월 16일/10월 1일	
아미산/낙산/대륙 7일	1,510,000		매 일	
정장산행/아미산/낙산/대륙 10일	1,850,000	2,200,000	매 일	장길 유림사 유림선 차이
구채구/황룡구/성도7일	1,530,000		매 일	
돈황/우루무치/북경 7일	1,750,000		월,목,토요일	
관영/대리/시쌍관나/지공상유적지10일	1,980,000		월,목,토요일	
관영/대리/시쌍관나8일	1,900,000		월,목,토요일	
내몽고/오대산/북경 8일	1,250,000		매 일	
티벳 12일	2,550,000		화,수,금요일	
티벳 걸망 11일	1,950,000		7월 28일/8월 28일	국제선항공보편안내인 동행, 공항세 및 출국세, 전용차량 숙박 및 조식 1억원 해외여행자 보험 포함
스리랑카 6일	1,280,000		수요일	
미얀마/태국 7일	1,580,000		매 일	
미얀마 6일	1,490,000		수요일	
캄보디아/베트남 5일	1,400,000		금요일	
라오스/캄보디아 9일	2,350,000		목요일	
인도네시아 보르부르도 5일	1,150,000		매 일	발리/족자카르타
대만 불광사/일월담/화련 4일	850,000		매 일	전일정 특급호텔 이용
북큐슈슈우 6일	750,000		일요일	
오키나와 4일	990,000		목요일	
홋카이도 4일	1,190,000		월요일	오키나와/니하 치토세/삿포로/시라오이/도야/노보리벳츠
인도8대성지9일				기후관계로 9월부터 가능
인도8대성지/아전타. 델라/산치 13일				